

201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

2011. 3

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분석반

목 차

요약	II
I. 개 요	1
II. 지역별·국가별 동향	3
III. 업종별 동향	7
IV. 기 타.....	11

< 요약 >

□ 2010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.4% 증가한 231.9억 달러 기록

○ 아시아, 제조업 및 광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투자 증가를 주도

※ 신규법인 수는 전년대비 15.2% 증가한 2,855개 기록

□ (지역별) 아시아와 중남미 투자 증가, 북미 투자 감소

○ 전년도 특히 부진했던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각각 제조업, 광업 중심으로 되살아나며 전체 투자액 증가를 견인

○ 유럽 지역은 투자가 증가한 반면, 북미는 감소하면서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, 유럽, 북미 순임.

□ (업종별) 광업, 제조업, 금융·보험업 상위 3개 업종 투자 증가

○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에 힘입은 광업 투자 증가, 과거 2년간 감소했던 제조업 투자 증가,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등에 따른 금융·보험업 투자 증가가 두드러짐.

○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투자비중 1위인 광업은 유럽, 중남미 중심으로, 2위 및 3위인 제조업과 금융·보험업은 각각 아시아, 북미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세를 보이며 투자비중을 더욱 확대

□ 해외자원개발, M&A, 금융업 투자 등으로 투자규모 대형화 확대

○ 1억불 초과 투자 비중: '08년 41.2% → '09년 47.0% → '10년 53.7%

□ 에너지 공기업,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의 투자비중 증가 추세 지속

○ 공공부문 투자비중: '08년 8.0% → '09년 32.1% → '10년 35.7%

I. 개 요

1. 연간 동향 및 주요 특징

- 2010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5.4% 증가한 231.9억 달러를 기록

(단위 : 백만 달러, 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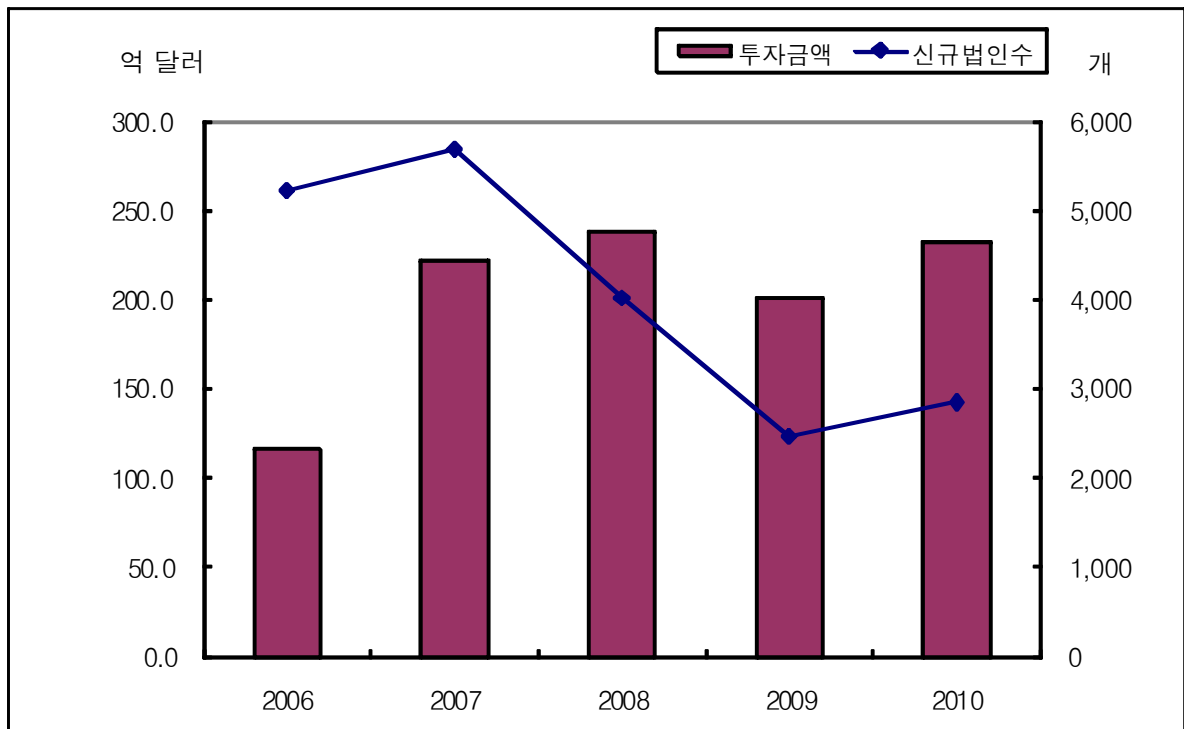
구 분	2006	2007	2008	2009	2010
투자금액	11,620	22,220	23,845	20,094	23,186
(증가율)	(61.7%)	(91.2%)	(7.3%)	(▽15.7%)	(15.4%)

- 2006년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인 2007년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나, 2008년 후반 시작된 전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 증가세 둔화, 2009년에는 오히려 감소 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며 역대 최고치 수준에 근접

<그림 1>

최근 5년간 해외직접투자 실적

(총투자기준)



- 지역별로는 상위 4개 투자지역 중 아시아, 유럽 및 중남미에 대한 투자는 증가한 반면, 북미 투자는 감소
 - 전년도 특히 부진했던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각각 제조업, 광업 중심으로 되살아나며 전체 투자액 증가를 견인
 - 투자액증가율: 아시아('09년 $\Delta 43.2\%$ → '10년 42.6%), 중남미($\Delta 50.5\%$ → 87.7%)
 - ※ 상위 10개 투자국가 : 영국 33억 달러, 미국 33억 달러, 중국 31억 달러, 말레이시아 16억 달러, 홍콩 13억 달러, 캐나다 12억 달러, 브라질 11억 달러, 인도네시아 9억 달러, 베트남 8억 달러, 독일 8억 달러
- 업종별로는 광업, 제조업, 금융 및 보험업 등 상위 3개 업종 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그 비중 확대
 -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에 힘입은 광업 투자 증가, 과거 2년간 감소했던 제조업 투자 증가,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등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투자 증가가 특징
 - 투자비중: 광업(27.0% → 31.2%), 제조업(22.7% → 28.2%), 금융 및 보험업(8.8% → 13.8%)
- 해외자원개발, M&A, 금융 및 보험업 투자 증가 등으로 대기업 중심의 투자 대형화 추세 확대
 - 대규모 투자(1억불 초과) 비중: '08년 41.2% → '09년 47.0% → '10년 54.2%
 - 대기업 투자액 비중: '08년 70.2% → '09년 81.3% → '10년 82.9%
-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, 국민연금의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투자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투자비중 증가 추세
 - 공공부문 투자비중: '08년 8.0% → '09년 32.1% → '10년 35.7%

II. 지역별·국가별 동향

1. 개 관

- 지역별로는 2010년 아시아(비중 40.8%), 유럽(25.4%), 북미(19.4%) 순으로 투자되었으며, 동 3개국 투자비중이 전체의 85.6%를 기록. 최근 5년간 동 3개국 투자비중도 평균 80%를 상회
- 2010년 아시아 및 유럽은 투자 증가세를 보인 반면, 북미는 감소

<표 1>

지역별 해외직접투자 금액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아시아	6,329	11,583	11,677	6,638	9,468	42.6%
유럽	1,231	4,431	3,390	5,145	5,883	14.3%
북미	2,176	3,760	5,297	5,998	4,501	-25.0%
중남미	1,085	1,295	2,102	1,040	1,953	87.7%
대양주	193	543	771	538	772	43.4%
중동	398	369	287	360	319	-11.3%
아프리카	207	239	320	374	291	-22.0%
합계	11,620	22,220	23,845	20,094	23,186	15.4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2010년 신규법인 수는 중남미,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여 신규 투자 확대 경향
- 동년 아시아 지역의 신규 법인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7.1%로 절대적인 반면 동년 동지역의 투자금액 비중은 41%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바, 이는 동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 소규모 투자비중이 높기 때문임.

<표 2>

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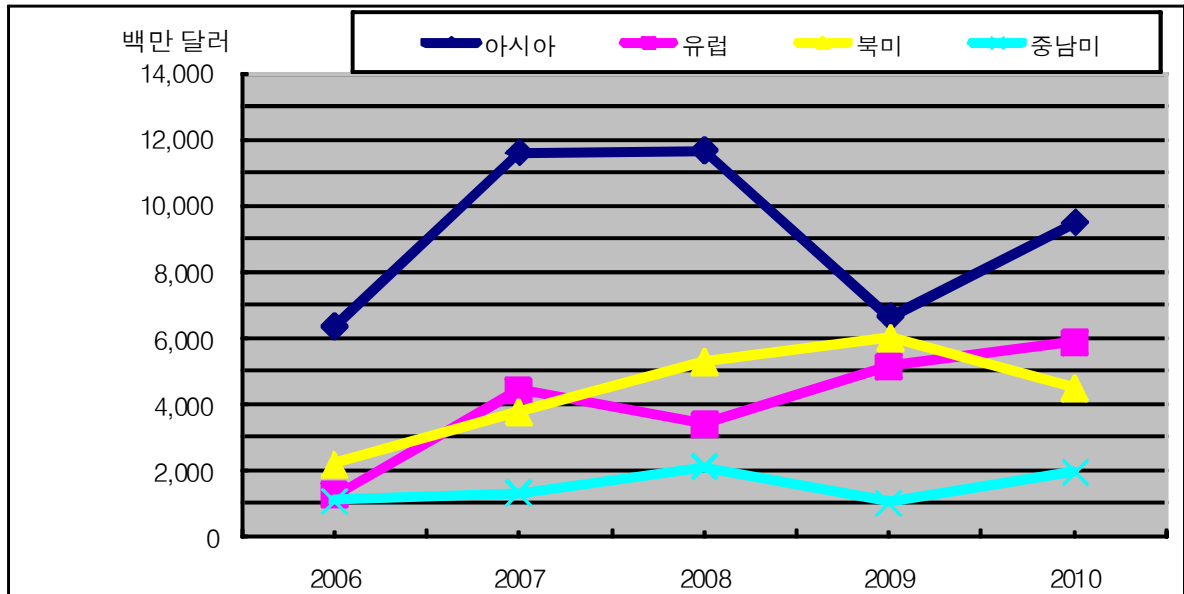
단위 : 개

	2006	2007	2008	2008	2010	
아시아	3,488	3,789	2,747	1,582	1,917	21.2%
유럽	167	254	196	130	152	16.9%
북미	1,342	1,318	808	534	547	2.4%
중남미	77	102	91	89	88	-1.1%
대양주	97	113	101	60	69	15.0%
중동	36	86	52	52	58	11.5%
아프리카	21	32	30	32	24	-25.0%
합계	5,228	5,694	4,025	2,479	2,855	15.2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<그림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2. 지역별 동향

가. 아시아

- 아시아 지역은 최대 투자국가인 중국 및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투자 증가로 투자금액이 전년대비 큰 폭 증가세를 기록

<표 3>

아시아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금액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중국	3,430	5,263	3,754	2,127	3,167	48.9%
말레이시아	51	158	327	110	1,555	1311.3%
홍콩	857	1,867	2,591	1,565	1,262	-19.4%
인도네시아	148	256	541	334	874	161.9%
베트남	593	1,297	1,360	602	832	38.3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업종별로는 제조업, 광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짐.

<표 4>

아시아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제조업	3,832	5,603	4,211	2,728	4,877	78.8%
광업	270	410	672	809	1,104	36.4%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263	429	595	371	995	168.3%
금융 및 보험업	131	1,076	1,478	1,158	883	-23.8%
도매 및 소매업	285	963	1,684	373	459	23.1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나. 유럽

- 유럽 지역에서는 영국과 독일이 투자 상위 1·2위를 차지하며, 유럽에 대한 투자 증가를 견인

<표 5>

유럽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금액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영국	69	175	189	1,710	3,280	91.9%
독일	38	404	642	292	757	159.4%
네덜란드	141	661	664	1,057	678	-35.9%
프랑스	29	33	30	264	337	27.8%
러시아	114	226	358	428	332	-22.4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업종별로는 상위 5개 투자업종 중 광업이 전년에 이어 큰 폭 상승하여 투자 비중 1위를 차지한 반면 나머지 업종은 모두 감소세

<표 6>

유럽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광업	89	252	282	767	3,279	327.4%
부동산업 및 임대업	10	11	25	1,606	1,061	-33.9%
제조업	882	1,742	1,653	902	865	-4.1%
도매 및 소매업	128	265	429	452	353	-21.9%
운수업	16	72	105	212	164	-22.8%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80	1,750	628	839	62	-92.7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다. 북미

- 2010년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2009년 큰 폭 증가 후 감소세를 나타내며 투자금액 기준 전년보다 1단계 하락한 3위 투자지역을 기록

<표 7>

북미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금액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미국	1,786	3,615	5,132	3,564	3,290	-7.7%
캐나다	390	145	166	2,434	1,210	-50.3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업종별로는 상위 5개 투자업종 중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투자 감소

<표 8>

북미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금융 및 보험업	9	63	83	121	1,561	1185.0%
광업	380	347	1,437	3,016	1,238	-58.9%
제조업	574	481	994	732	366	-49.9%
도매 및 소매업	620	1,093	1,443	842	319	-62.1%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41	773	602	617	285	-53.9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라. 중남미

- 중남미 지역은 브라질 및 조세회피국가인 케이만군도에 대한 투자 증가

<표 9>

중남미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금액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브라질	110	265	635	132	1,054	701.3%
케이만군도	222	350	235	460	531	15.5%
버뮤다	421	113	452	00	115	-
멕시코	53	120	305	55	64	16.0%
파나마	133	172	241	241	53	-78.2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업종별로는 광업, 금융 및 보험업, 제조업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짐.

<표 10>

중남미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광업	220	365	847	162	866	433.2%
금융 및 보험업	482	391	553	477	557	16.7%
제조업	213	263	265	112	251	123.9%
부동산업 및 임대업	100	50	88	132	134	1.2%
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-	16	17	-	102	10155.6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III. 업종별 동향

1. 개 관

- 업종별 투자는 상위 3개 업종인 광업(비중 31.2%), 제조업(28.3%), 금융 및 보험업(13.8%)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나머지 주요 업종은 감소

<표 11>

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광업	1,431	2,051	4,104	5,430	7,225	33.1%
제조업	5,568	8,158	7,200	4,571	6,567	43.7%
금융 및 보험업	621	1,685	2,158	1,774	3,204	80.6%
부동산업 및 임대업	868	1,612	1,768	2,462	1,509	-38.7%
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387	2,973	1,846	1,829	1,443	-21.1%
도매 및 소매업	1,121	2,511	3,730	1,810	1,149	-36.6%
기타	1,624	3,230	3,039	2,217	2,090	-5.7%
합계	11,620	22,220	23,845	20,094	23,186	15.4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업종별 신규법인 수는 광업을 제외한 상위 대부분 업종이 전년 대비 증가한 한편 광업의 경우, 신규법인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건별 투자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<표 12>

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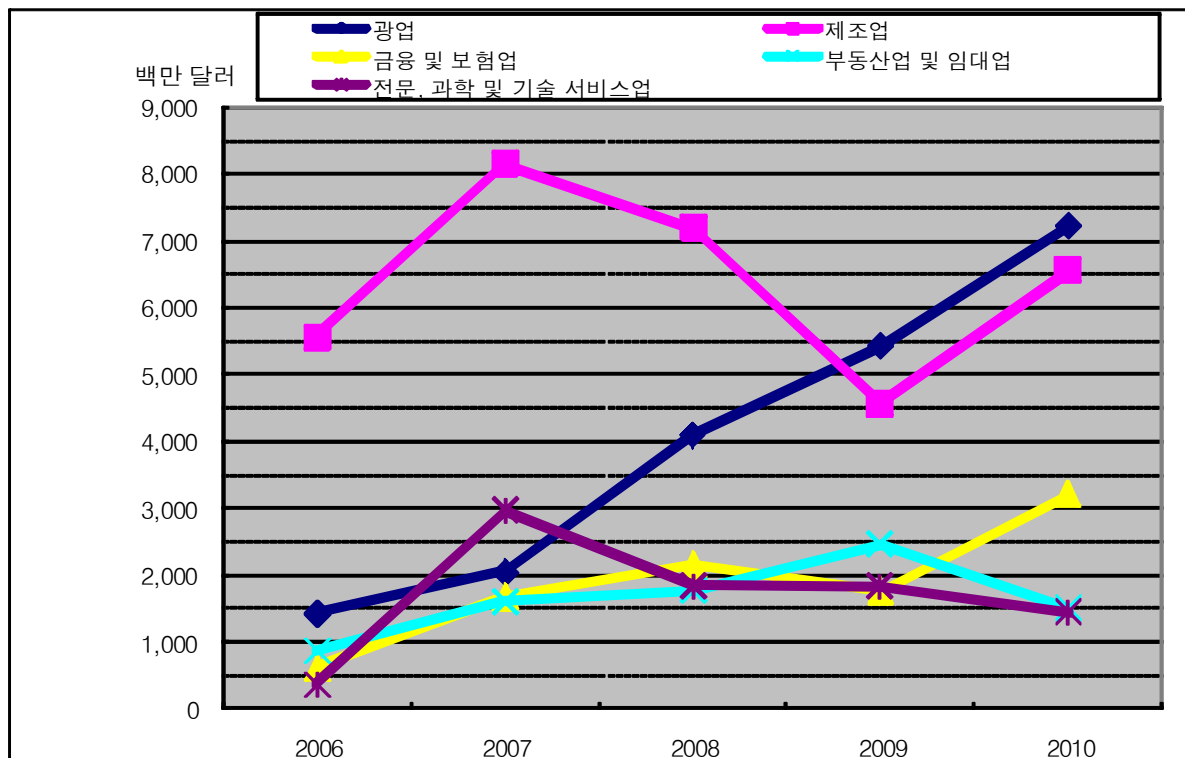
단위 : 개

	2006	2007	2008	2009	2010	
광업	66	72	108	66	52	-21.2%
제조업	2,271	2,251	1,400	851	1,120	31.6%
금융 및 보험업	22	77	81	46	63	37.0%
부동산업 및 임대업	169	350	292	95	99	4.2%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186	229	219	128	141	10.2%
도매 및 소매업	943	1,009	789	526	648	23.2%
기타	1,571	1,706	1,136	767	732	-4.6%
합계	5,228	5,694	4,025	2,479	2,855	15.2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<그림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2. 업종별 동향

가. 광업

- 제조업을 제치고 1위 투자업종이 된 광업은 영국, 브라질, 인도네시아, 호주 등에서 전년 대비 큰 폭 증가
- 이는 최근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증가 등에 주로 기인

<표 13>

광업 주요국 해외직접투자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영국	9	55	83	2	3,008	136465.9%
캐나다	294	26	58	2,394	1,141	-52.3%
브라질	57	110	612	89	771	769.3%
인도네시아	14	12	45	120	561	367.9%
오스트레일리아	25	72	533	162	366	126.0%
네덜란드	54	65	31	493	258	-47.7%
마다가스카르	29	134	108	285	166	-41.9%
미얀마	00	01	35	348	162	-53.5%
베트남	187	251	216	147	156	5.8%
미국	86	321	1,379	622	97	-84.4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나. 제조업

<표 14>

제조업 주요국 해외직접투자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중국	2,883	3,799	2,326	1,693	2,294	35.5%
말레이시아	11	25	50	39	1,352	3384.0%
베트남	296	620	665	304	450	47.8%
미국	541	472	977	725	360	-50.4%
러시아	41	112	265	261	295	13.0%
홍콩	279	322	486	222	173	-22.0%
인도네시아	103	143	205	79	171	118.1%
네덜란드	09	342	97	27	158	480.1%
필리핀	16	24	45	26	151	477.8%
인도	82	261	135	216	132	-38.6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제조업은 최대 해외투자국인 중국을 포함하여 말레이시아, 베트남에 대한 투자 증가가 특징
- 말레이시아 투자 급증은 화학 및 철강부문 제조업 투자 증가에 주로 기인

<표 15>

제조업 세부업종별 해외직접투자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	171	20	110	61	1,389	2193.3%
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	153	230	202	172	512	197.6%
다이오드,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	591	941	130	121	314	159.1%
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	705	1,255	1,026	543	262	-51.8%
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	180	300	316	222	251	13.3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세부업종별로는 상위 5개 업종 중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종을 제외한 4개 업종 모두 증가

다. 금융 및 보험업

- 금융 및 보험업종에서는 상위 5개 투자국 중 홍콩을 제외하고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, 미국은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금융 및 보험업을 3위 투자업종으로 견인

<표 16>

금융 및 보험업 주요국 해외직접투자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미국	9	63	54	121	1,561	1185.0%
케이만군도	124	236	127	438	481	9.7%
중국	16	656	258	50	347	598.0%
홍콩	112	280	161	810	242	-70.2%
오스트레일리아	-	-	-	1	175	13937.4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라. 부동산업 및 임대업

-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년도 상위 투자국인 영국 및 홍콩에 대한 투자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전년대비 투자 감소한 한편, 독일, 프랑스 브라질 등에 대한 신규 투자 발생

<표 17>

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요국 해외직접투자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독일	6	-	2	-	684	-
프랑스	-	-	1	-	322	120891.9%
미국	46	232	127	237	102	-56.8%
브라질	00	00	-	-	82	-
베트남	18	203	213	21	51	141.4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IV. 기 타

1. 투자자 기업규모별 동향

- 대기업에 의한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17.4% 증가한 가운데 2006년 62.6%에서 2010년 82.7%로 점차 그 비중을 늘려오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2006년 28.7%에서 2010년 15.4%로 축소

<표 18>

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금액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대기업	7,277	14,896	16,728	16,338	19,184	17.4%
중소기업	3,332	5,994	6,115	3,415	3,566	4.4%
개인기업	136	168	93	43	56	30.8%
개 인	874	1,046	860	298	379	27.2%
기타(비영리단체 등)	-	116	50	-	0.1	7232.3%
합 계	11,620	22,220	23,845	20,094	23,186	15.4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대기업이 투자한 신규법인 수는 전년대비 33.2% 증가한 가운데 그 비중은 2006년 6.0%에서 2010년 12.9%로 증가하였으며, 중소기업의 경우도 2006년 36.9%에서 2010년 47.0%로 증가한 반면 2006년 48.6% 비중을 차지했던 개인이 투자한 신규 법인 수는 2010년 35.9%로 감소

<표 19>

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 수

단위 : 개

	2006	2007	2008	2009	2010	
대기업	312	399	380	277	369	33.2%
중소기업	1,928	2,259	1,847	1,175	1,343	14.3%
개인기업	449	413	194	109	117	7.3%
개 인	2,539	2,617	1,601	918	1,024	11.5%
기타(비영리단체 등)	-	6	3	-	2	-
합 계	5,228	5,694	4,025	2,479	2,855	15.2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2. 지분율별 동향

- 지분율별로는 100% 투자가 최근 5년 연속 전체의 70%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, 50% 초과 투자는 전체의 85% 내외 수준을 유지해옴.
- 2010년 지분율 10%이상~50%미만의 투자증가는 광업이, 50%초과 100% 미만의 증가는 제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.

<표 20>

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10%미만	536	815	736	436	302	-30.7%
10%이상~50%미만	858	2,345	3,188	1,578	2,864	81.5%
50%	343	541	358	657	170	-74.1%
50%초과~100%미만	1,685	2,552	2,089	1,605	3,090	92.5%
100%	8,198	15,967	17,474	15,818	16,759	6.0%
합 계	11,620	22,220	23,845	20,094	23,186	15.4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3. 투자규모별 동향

- 2010년 1,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가 전년 대비 16.5% 증가한 가운데 전체의 81.3%를 차지하여 2006년 투자비중 59.8%, 전년의 투자비중 80.5% 보다 확대되는 등 투자규모의 대형화 추세 확대

<표 21>

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50만불 이하	994	1,042	815	545	585	7.3%
50만불~200만불	1,298	1,570	1,364	934	1,049	12.3%
200만불~500만불	1,308	1,946	1,790	1,308	1,386	6.0%
500만불~1000만불 이하	1,066	1,623	1,699	1,125	1,317	17.1%
1000만불~5000만불 이하	2,821	5,026	5,297	4,068	4,081	0.3%
5000만불~1억불 이하	1,219	1,836	3,002	2,629	2,249	-14.5%
1억불 초과	2,914	9,177	9,878	9,485	12,520	32.0%
합 계	11,620	22,220	23,845	20,094	23,186	15.4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4. 투자방법별 동향

-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방법 중 증권 취득이 전년에 비해 21.9% 증가한 가운데 전체의 90.6%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5년 내 최대 비중을 나타냄.

<표 22>

투자방법별 해외직접투자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증권 취득	10,146	19,113	19,481	17,237	21,008	21.9%
대부채권 취득	1,473	3,107	4,364	2,857	2,178	-23.8%
합 계	11,620	22,220	23,845	20,094	23,186	15.4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5. 법인형태별 동향

- 현지법인 형태는 법인의 설립이 투자금액 기준 73.7%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, 점차 그 비중이 축소('08년 93.7%, '09년 77.9%, '10년 73.7%)
- 한편, 해외자원개발은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채광권만을 매입하는 경우로, 매년 증가세를 지속해오며 그 비중을 확대('08년 5.8%, '09년 21.8%, '10년 25.9%).

<표 23>

법인형태별 해외직접투자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법 인	10,679	20,874	22,335	15,648	17,091	9.2%
개인기업	183	211	108	52	60	14.5%
기 타	23	37	17	6	38	485.8%
해외자원개발사업	735	1,098	1,385	4,387	5,998	36.7%
합 계	11,620	22,220	23,845	20,094	23,186	15.4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6. M&A형 해외투자

- 2010년 M&A형 해외투자는 광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. 한편, 동 통계는 2007년부터 작성되었음.

<표 24>

M&A형 해외직접투자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
광업	356	1,312	1,320	3,900	195.3%
제조업	2,231	1,700	880	1,099	24.9%
금융 및 보험업	254	264	925	497	-46.2%
도매 및 소매업	1,084	2,065	924	350	-62.1%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1,622	544	647	236	-63.6%
기 타	862	1,567	583	318	-45.5%
합 계	6,408	7,453	5,279	6,400	21.2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7. 공공부문의 해외투자

-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는 에너지 공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및 국민연금의 금융 및 보험업 투자 등에 힘입어 증가세 지속 및 그 비중 확대

<표 25>

공공부문의 해외직접투자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
공공기관*	870	1,163	1,897	4,417	5,802	31.4%
국민연금	-	-	-	2,024	2,473	22.2%
공공부문 투자비중	7.5%	5.2%	8.0%	32.1%	35.7%	-

* 공공기관은 석유공사, 광물공사, 가스공사, 한국전력 투자금액 추정치